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Reuters: 1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크게 상승

[미국 금융]

- WSJ: 과열된 채권 시장 탓에 위험도 높은 기업 차입 비용 절감돼
- Bloomberg: 증시 상승으로 S&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

[학자금 대출]

- CNBC: 바이든 행정부, 7만3천6백명의 학자금 대출자에 49억 탕감

[주택]

- WSJ: 작년 미 주택 판매, 거의 30년만에 최저

[에너지]

- Bloomberg: 원유 3주 치 만에 최고...배럴 당 79불
- WSJ: 미 상업용 원유 비축량 감소...휘발유와 디젤 재고는 상승

[세계 경제]

- Bloomberg: 2024년 다보스, “세계 경제 정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”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올 해 일자리 축소 예상 기업들
- WSJ: 메이시스, 2천 3백여명 직원 해고하고, 5개 지점 문 닫다
- CNN Business: 월마트, 십년 만에 처음으로 매니저 연봉 9% 인상 단행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Reuters: US consumer sentiment rises solidly in January

1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크게 상승

-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과 가계 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021년 여름 이후 가장 높게 올랐다.
- 1월 미시간주의 전반적인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 78.8로 나타나 12월 69.7보다 높게 나타났다. 로이터의 전문가 설문조사 예상치는 70이었다.
-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소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.

Reuters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A Hot Debt Market Is Slashing Borrowing Costs for Riskier Companies

과열된 채권 시장 탓에 위험도 높은 기업 차입 비용 절감돼

-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의 차입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.
- 시월드 등 해당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올해 1월에 6백20억달러 규모의 투자 등급이 낮은 대출에 대해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는데, 이는 월간 기준으로 3년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S&P 500's Record in Sight as Stocks Signal Gains: Markets Wrap

증시 상승으로 S&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

-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미 주식은 이번주에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되고 있다.
- 강한 경제 신호에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.
- 국채 변동성 하락이 보여지고 있어 S&P 500에서 영향력이 큰 기술주들의 우세로 보여졌고, 미 증시 벤치마크는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학자금 대출]

CNBC: Biden administration to forgive \$4.9 billion in student debt for 73,600 borrowers

바이든 행정부, 7만3천6백명의 학자금 대출자에 49억 탕감

-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금요일 7만3천6백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총 63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했다.
- 이같은 탕감은 연방 교육부가 소득에 기반한 재상환 플랜과 공공 서비스 용자 탕감 프로그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. 한마디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해결했다는 입장이다.

CNBC 기사

[주택]**Home Sales Were the Lowest in Almost 30 Years in 2023****작년 미 주택 판매, 거의 30년만에 최저**

- 주택 가격이 높고, 매물도 낮고, 모기지율도 낮다보니 작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 28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작년 기존 주택 판매는 전년도에 비해 19% 떨어진 4백9만채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 1995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국부동산협회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.

WSJ 기사

[에너지]**Bloomberg: Oil Holds Near Highest Close This Year on Middle East Turmoil****유가 3주 치 만에 최고... 배럴 당 79불**

- 중동 갈등이 격화되면서, 유가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가 어제 목요일 배럴당 79불에 거래된 것이다.
- Commerzbank의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, 원유 시장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U.S. Crude-Oil Stocks Fall, Products Rise in Week**미 상업용 원유 비축량 감소 ... 휘발유와 디젤 재고는 상승**

- 미 에너지정보청(EIA) 데이터에 따르면,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으며, 휘발유와 디젤의 재고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략적 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가 2백50만 배럴 감소해 4억2천9백9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, 이는 5년 평균 재고량보다 3% 낮은 수준이다.
- 또한 이 기관이 원유 수요가 하루 1백2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 발표한 뒤, 어제 목요일 원유 선물은 상승세를 보였다.
- 미 휘발유 재고량은 3백10만 배럴 증가했으며, 디젤은 2백40만 배럴 증가했다.

WSJ 기사

[세계 경제]

Bloomberg: Davos Sees Nothing Normal About the Global Economy for 2024**2024년 다보스, “세계 경제 정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”**

- 올해 마지막 다보스 패널들에 따르면, 세계는 타협적이면서도, 다소 불안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세계 곳곳의 분쟁과 포퓰리즘에도,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, 글로벌 무역량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.
-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처음엔 정상화(Normalization)를 찾기 시작했지만, 현실은 정상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.
-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세계에 미칠 파급과, 미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he Companies Cutting Jobs in 2024: Here's the List**올해 일자리 축소 예상 기업들**

- 취업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, 일부 기업들이 올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.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언급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.
- 구글: 올해 1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부서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, 채용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다. 이 기업은 작년에 1만2천여명 이상의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.
- 아마존: 영화, 방송 스튜디오 그리고 트위치에서 수백개의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다. 아마존의 오디오북 플랫폼인 Audible과 Buy With Prime 또한 직원의 5%를 해고한다.
- 씨티 은행: 2026년까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.
- Unity Software: 게임 업계 추세에 따라, 1천8백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 발표했다.
- Xerox: 15%의 직원을 줄일 것이라 말했다.

WSJ 기사

WSJ: Macy's to Cut 2,350 Jobs, Close Five Store**메이시스, 2천 3백여명 직원 해고하고, 5개 지점 문 닫다**

- 메이시스가 고객 경험을 관리하고, 비용을 줄이기 위해 13%의 인력을 해고하고, 5개의 지점을 폐장할 계획이다.
- 관계자에 따르면, 정직원 해고 규모는 전체 3.5%, 약 2천3백50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.
- 또한, 이 기업은 앞으로 공급망에 더 많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, 외부 인력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CNN Business: Walmart raises store managers' pay for first time in a decade, average hits \$128,000

월마트, 십년 만에 처음으로 매니저 연봉 9% 인상 단행

- 월마트가 어제 목요일, 스토어 매니저의 평균 연봉을 9% 인상해 12만8천불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했다.
- 또한, 보도자료를 통해, 매장의 수익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, 매니저들의 보너스 프로그램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.
- 이런 움직임은 소매업체들이 더 많은 근로자를 보유하고, 이직률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.

CNN Business 기사

CNN Business: JPMorgan Chase says hacking attempts are increasing JP 모건, "해킹 공격 크게 증가하고 있다"

- JP 모건 체이스는 작년에 회사 시스템을 침투하기 위한 해커의 매일 매일 공격이 상당히 크게 늘고 말했다. 이는 이 은행과 대형 은행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도전이 커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.
- 자산면에서 가장 큰 이 회사는 매년 자사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매년 1백50억불과 6만2천명의 전문가들은 고용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美연준 비둘기파 인사 "금리인하 3분기 예상...더 앞당겨질 수도"

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..."인플레이·노동시장 '황금길' 더 지속"

올해 3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비둘기파(통화완화 선호) 성향 인사의 발언이 나왔다.

미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(연은) 총재는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"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및 경제활동의 진전을 반영해 기준금리 정상화 시점을 기존의 올해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겼다"라고 밝혔다.

보스틱 총재는 지난해 11월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.6%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"인플레이션 둔화와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으로 조합되는 '황금길'이 몇 달 전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"라고 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